

‘脫여의도’ 표방... 철저히 ‘실무형’

이명박 후보 선대위 인선 완료

분야별 위원장 6명 아웃소싱 지방선대위 규모 확대 방침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인 “대한민국 국민성공캠프”가 8일 그 모습을 드러냈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발대식 이후 대선까지 70일의 대장정을 이끌고 갈 ‘이명박호(號)’는 철저히 실무형으로 짜여졌다는 게 이 후보 캠프의 설명이다.

▷후보 중심 조직= 이 후보 중앙선대위 산하에 지방선대위를 두는 ‘수직구조’가 아닌 후보를 중심으로 중앙선대위와 지방선대위가 병렬관계를 갖는 ‘수평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또 중앙선대위 조직을 최대한 ‘슬림화’하는 대신 당내 중진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 지방선대위의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비서실, 유세지원단, 대변인단, 특보단 등 측근 조직은 물론 중앙과 지방선대위원장은 이 후보가 컨트롤하고, 2개 특위의 일류국가비전위원회 등도 후보 직속으로 배치됐다. 특히 경제살리기특위는 직접 이 후보가 위원장을 맡았다.

이방호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선대위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제발전과 국민통합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한편 조직을 단순·슬림화함으로써 효율성을 확보토록 했다”면서 “시·도 선대위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현장밀착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8일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좌우로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이용득 한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

- ▲공동선대위원장
 - 유종하 전 외무장관(외교안보)
 - 박찬모 전 포항공단 총장(교육과학기술)
 - 배은희 리엔바이오 대표(미래산업)
 -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
 - (체육청소년, 농어업 분야는 미정)
- ▲상임고문단
 - 박근혜 전대표,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 김수환·박관용 전 국회의장

성과 국민참여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중앙선대위원장 각계 전문가로 구성=이 후보 선대위는 당 중진들이 중요 자리를 차지했던 지난 2002년과 달리 명목상 외부인사들이 주를 이뤘다.

강제집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등 사실

상 당원직을 제외한 6명의 중앙선대위원장이 모두 외부인사다.

우선 외교·안보 담당 선대위원장에 내정된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은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맡은 것을 비롯해 외무 공무원 생활만 30년을 한 ‘배태랑 외교관’이다.

교육·과학기술 담당인 박찬모 전 포항공단 교수는 재미 한국정보과학기술자협회 회장 겸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장 등을 맡으면서 과학·기술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발이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미래첨단산업 분야 바이오 벤처 기업 리엔 바이오 배은희 대표나, 사회복지분야 위원장을 맡게 된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 등은 정치권에서는 꽤 생소한 이름이다. 이는 ‘탈(脫)여의도 정치’를 표방해온

이 후보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호남 인사 소외=중앙선대위 인선 내용을 보면 호남 인사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선대위 부위원장에 포함된 광주의 한영 최고위원 정도. 또 한민족네트워크위원장으로서 전북 출신의 김덕룡 의원이 포함됐지만 담내읍 인사일 뿐, 호남을 배려한 인사로 보기는 힘들다.

국회의원들의 경우 한나라당 내내 호남 인사가 드물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외부 영입케이스도 호남 출신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와 관련 이방호 사무총장은 “중앙선대위는 정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출신 지역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 선대위원장에 전석홍·이균범씨

다만 광주는 이날 확정을 못해 9일 오전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선대위에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맹형규 이재오 홍준표 의원 등 3선의 의원과 함께 배성동 현정회 정책위의장을 임명했

다. 총괄본부장은 공성진 서울시장위원장이 맡았다.

인천은 이운성 이경재 황우여 의원 등 3선의 의원들이, 경기도는 김영선 이재창 의원(이상 3선)과 고홍길(재선) 의원, 전용원

전 의원 등이 위원장으로, 남경필 의원이 총괄본부장으로 된다.

부산은 김형오(4선) 권철현 김무성 정의화 정형근(이상 3선) 의원 등 3선 이상 중진 5명이 포진했으며, 총괄 본부장으로 재선의 안경률 의원이 배치됐다. 경남도 3선의 김기춘 의원이 발탁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BBK 김경준씨 항소 포기... 조기 귀국할 듯

〈美 법원 인신보호 청원 취하〉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선후보의 실소유 여부로 논란을 빚어온 투자자문사 BBK 관련 핵심 인물인 김경준 BBK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LA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에 정통한 한 핵심 소식통은 8일 “김씨가 지난 1일 인신보호 청원 항소 취하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면서 “정확한 귀국 날짜는 모르

지만 서울에 가는 것은 확실하다”고 전했다.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미국에 수감돼 있는 김씨는 한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했으나 이를 취하함에 따라 그가 귀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그가 귀국할 경우 BBK 실소유 논란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대선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특히 김

씨는 지난 8월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BBK 투자유치는 모두 이 후보가 한 것”이라며 “한국으로 돌아가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겠다”는 주장을 펼쳐와 주목됐다.

김씨는 BBK 주가조작사건으로 5천200여명의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고 380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뒤 지난 2001년 미국으로 도피했으며, 우리 정부의 범죄인 송환 요구에

따라 2003년 5월 체포된 뒤 2005년 10월 한국 송환 판결을 받았지만 ‘인신보호 청원’을 법원에 낸 뒤 항소심 절차를 계속 진행중이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소재 미 연방검찰의 공보관인 톰 머렛 검사는 “그동안 김경준 사건을 예의주시하며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나, 김씨가 항소취하서를 냈다는 얘기는 전혀 듣는 바 없다”면서 “관련 사건 파일들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민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심원섭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고문직은 백의종군이나 마찬가지로”

고문직 수락 박근혜 전 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8일 이명박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고문직을 수락한 것과 관련, “백의종군이나 마찬가지로”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 전 본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문직은) 대선 같은 때에 전직 대표로서 당연 직 같은 것 아니냐”면서 이 같이 말했다.

고문직이 이 후보측의 특별한 배려나 예우

가 아니라 전직 당 대표로서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언급으로 고문직 수락이 적극적인 이 후보 선대위 참여로 해석되는데 대한 일종의 선 긋기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보인다.

박 전 대표는 조만간 이 후보와 만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오는 9일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을 방문, ‘달성군민의 날’ 행사에 참석해 지역구 주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선대위 고문직을 수락한 박근혜 전 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재오-이한구 ‘대운하 논쟁’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과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8일 이명박 대선후보의 대표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놓고 격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오른팔’격인 이 최고위원과 이 후보의 공약확정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운하 공약의 추진 방향과 방법론 등을 놓고 갑론을박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두 사람은 회의장 밖까지 들릴 정도로 언성을 높였고 이 정책위의장은 이 최고위원에게 “제발 사람 말 좀 들어보라”고 사정

하기까지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정책위의장은 전문가 토론회 및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명회를 먼저 거친 뒤 대운하 공약을 어느 정도 강도로 추진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최고위원은 대선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대운하 공약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초위원들에게 보낸 문건에서 대운하 공약을 지적해 “내수 시장 살리자고 한반도 대운하 한다? 토목 출신 티내느냐”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이 후보의 측근들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불쾌한 반응을 드러낸 바 있다. /연합뉴스

남북 총리회담 11월초 개최 의견 접근

정부는 ‘200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울에서 개최기로 한 총리회담을 11월초에 열기로 북한측과 의견접근을 보고 이 같은 시간표에 따라 회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 핵심 소식통은 “남북한은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 과정에서 총리회담을 가급적 빨리 개최한다는 방침에 따라 11월초에 갖기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남북총리회담에서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 남북이 쉽게 합의할 수 있고 합의 즉시 이행 가능한 경제협력 문제를 집중 논의하는 한편, 서해 공동어로구역 및 경협사업의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은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소화를 돕는 가스활명수의 11가지 생약성분 : 이산화, 고추틴크, 계피, 육두구, 현호색, 정향, 창출, 건강, L-Menthol, 진피, 후박

11가지 생약성분 -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저도 가스활명수 좋은거 다 알아요!!”

겁다고 뒤든지 다 소화시키는거 아니잖아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저는 그럴 땐 가스활명수만 마셔요. 소화에 좋은 11가지 생약성분까지 있으니까 - 부채표 가스활명수 좋은거 저희도 다 알아요

11가지 생약성분 소화제 -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11가지 생약성분 - 부채표 가스활명수큐